

여의도 하스팟

6월 FOMC: 미국 증시 눈높이, 애초에 낮았다

이제는 무의미해진 점도표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주재 첫 FOMC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향후 소통/대차대조표/데이터/생산성-일자리/인플레이션 5개 task force 프레임워크 출범 발표했으며 가을 중간 보고, 연말까지 완료 목표. 이외에도 기자회견, 의사록, SEP, 점도표까지 전반적인 개혁 의지 표명. 실제로 워시는 포워드 가이드언스의 유효성에 의구심 표출하며 이번 점도표를 찍지 않았음. 다만, 여타 위원들은 올해 1회 이상 인상 9명, 동결 또는 인하 9명으로 갈린 상황.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발언을 반복했기에 시장은 표면적으로 이를 매파적으로 해석

애초에 낮았던 증시의 눈높이

통화정책 상 큰 이벤트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증시 관점에서는 더 잃을 것이 없는 상황. 유가 하락으로 경기 민감주의 단기적 모멘텀은 있을 수 있겠으나 키 맞추기 확산에 그칠 뿐 1) 하반기까지 물가를 지켜봐야할 필요성 2) 중간선거 영향권(2~3분기) 고려하면 3분기까지 주도주(반도체) 중심의 흐름 지속될 것으로 전망

통상 신임 연준의장 취임 전후로 시장 변동성은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임. 다만, 이미 지난 1월 말 워시 지명 당시 유동성 민감 자산군 중심으로 텐트럼 현상을 보인 바 있음. 우선 최근 기준금리 인상 베타가 확산된 플로우를 주목할 필요. 미국-이란 사태가 다시금 격화되는 배경에서 4월 CPI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 채권 변동성 야기. 다만, 통계적 요인에 따른 4월 CPI 주거비 일회성 변동이 제거되면서 5월 CPI는 다시금 시장 예상치에 부합. 미국-이란 역시 MOU에 공식 서명하며 유가는 \$70대까지 급락. 공급망 정상화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반대로 1) 미국 개입 이후 베네수엘라 산유량 증대, 2) 이란 제재 해제, 3) 유가 후행해서 상향될 미 산유량 등 공급 사이드 우호적 이슈도 상존 월드컵 이후 고용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임계점 부근까지 상승했던 유가와 NFIB 서베이는 향후 어느 정도의 하방 압력이 잔존해 있다는 것을 시사. 무엇보다 전체 고용 수치는 견조할 수 있겠으나 철저히 고임금 업종 중심으로 감원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생각보다 증시에 반영된 물가 우려는 과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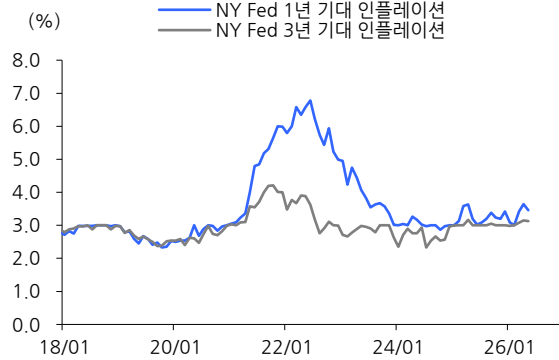
Analyst 허장권 research.ha@hmsec.com

<그림1> 러우 전쟁 때와 달리 기대 인플레 상승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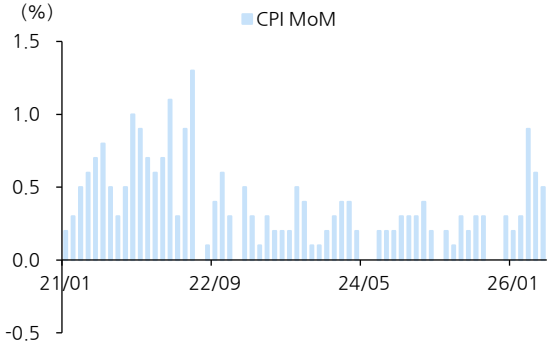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2>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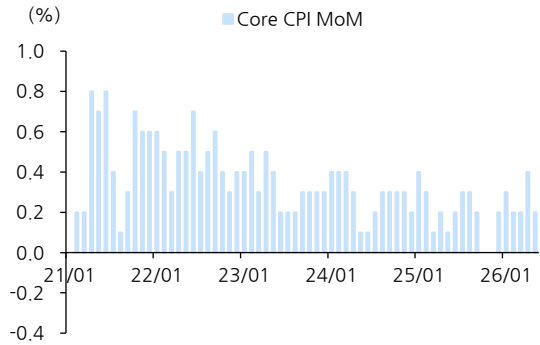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3> 유가 상승으로 헤드라인 CPI 상승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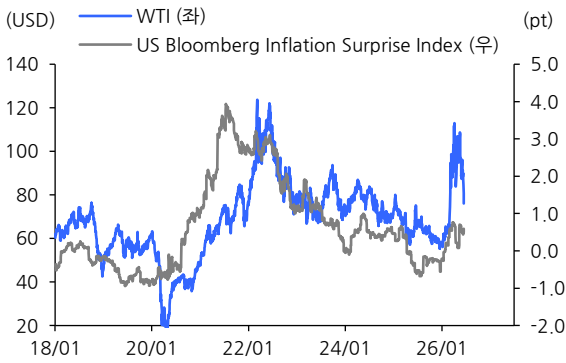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4> Core CPI은 이전 레벨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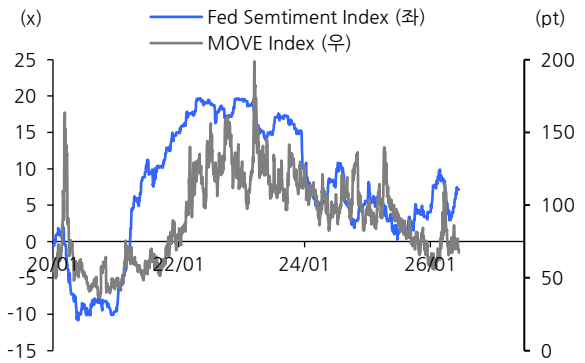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5> 이제는 물가 안정에서 기대가 나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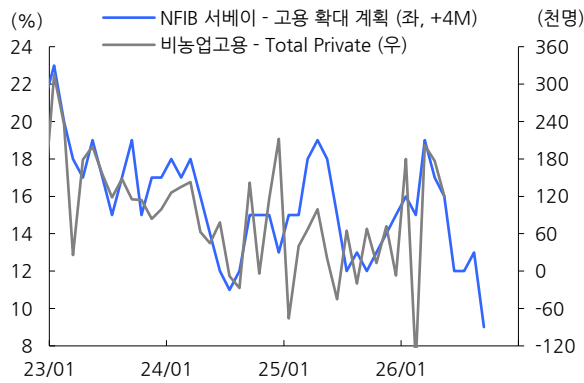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6> 채권 변동성, 연준 위원 발언 색채도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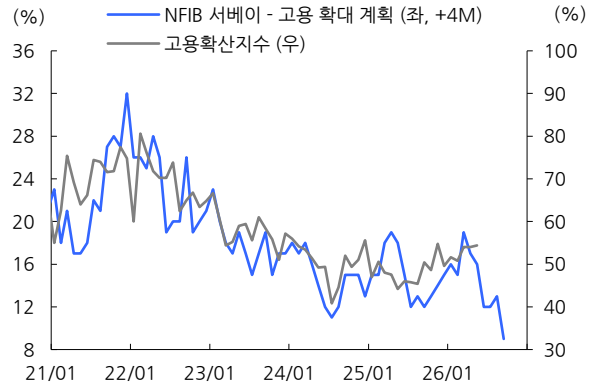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7> 최근 월드컵 효과에 따른 고용 서프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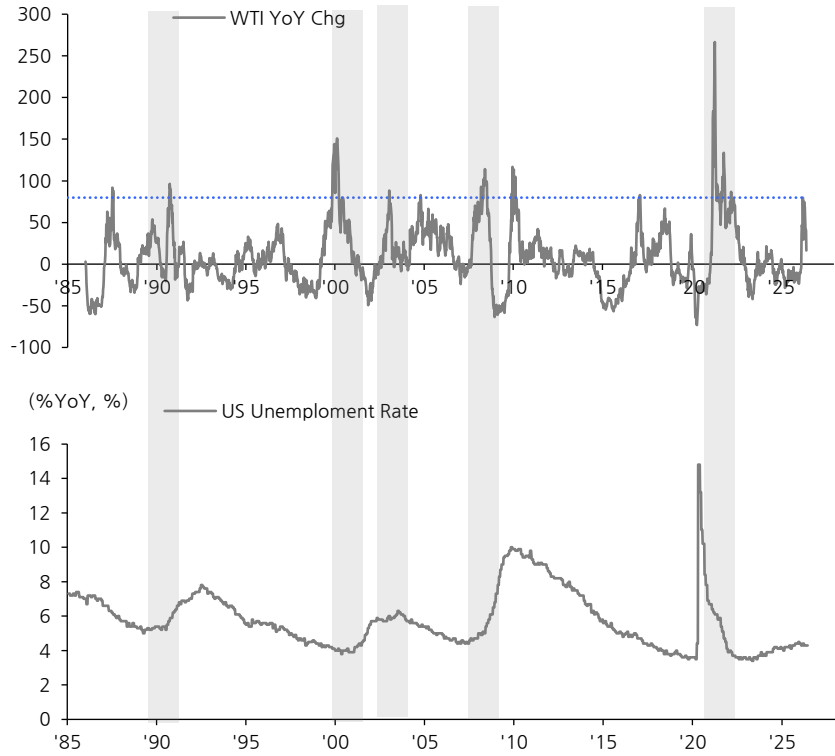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8> 하반기 고용은 여전히 지켜볼 필요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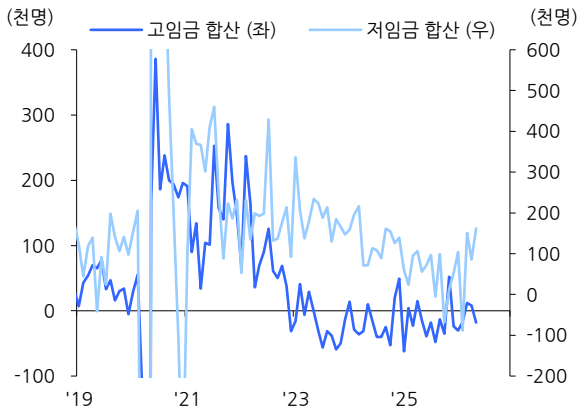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9> 임금점 근방까지 갔던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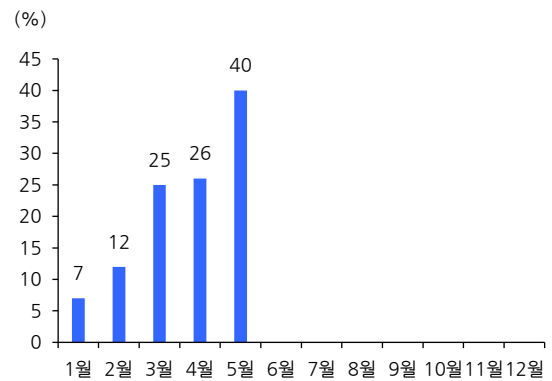
자료: LSEG, 현대차증권

<그림10> 견조한 고용에도 임금-물가 스파이럴 제한적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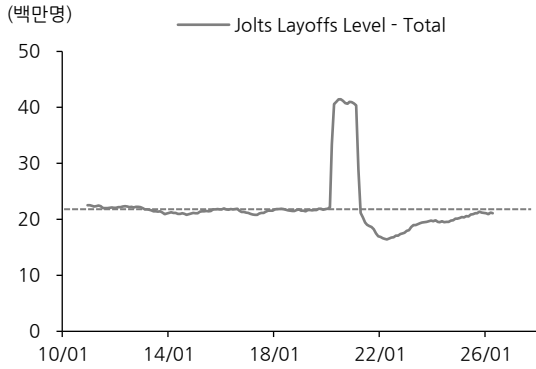
자료: LSEG, 현대차증권

<그림11> 시를 사유로 제시한 비율 3개월 연속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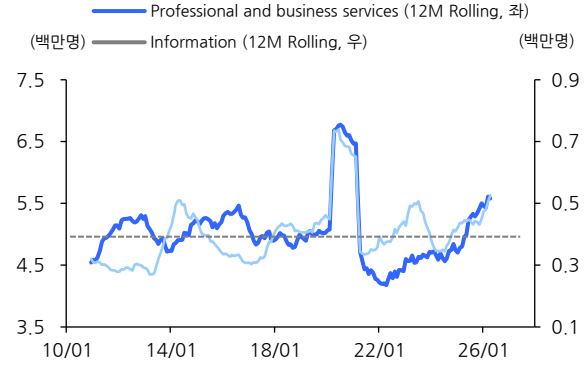
자료: Challenger, Gray & Christmas, 현대차증권

<그림12> 전체 해고 건수는 무난한 수준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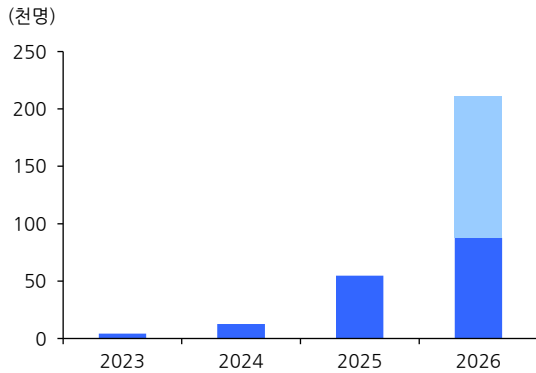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13> 고임금 업종은 추세 상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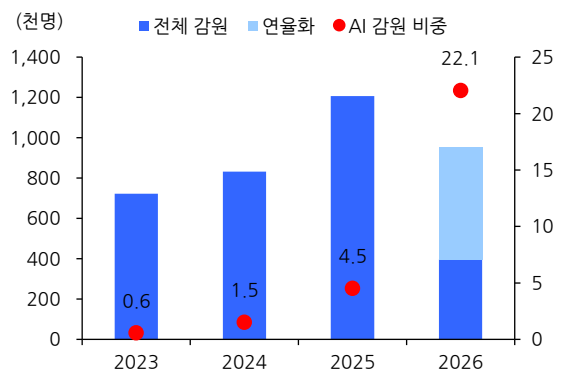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14> AI-Driven Job Cu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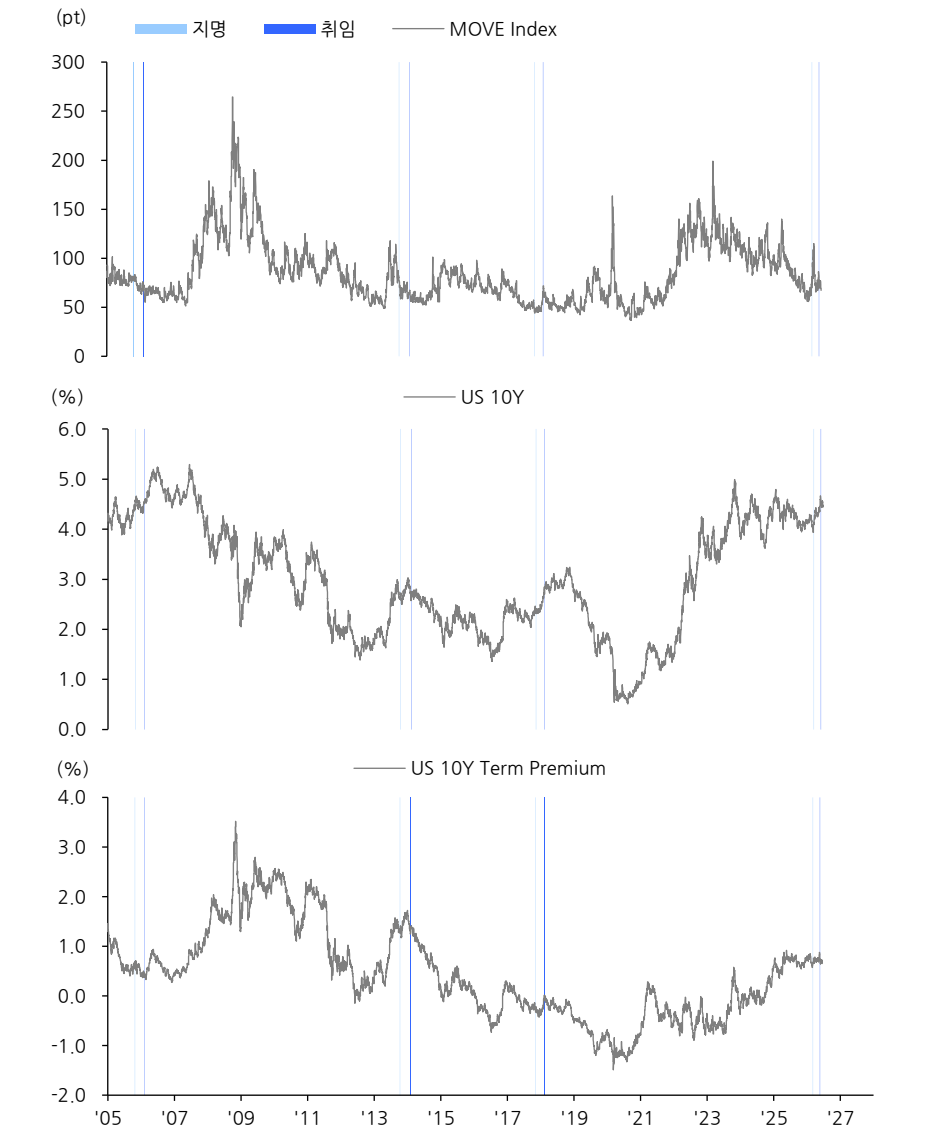
자료: Challenger, Gray & Christmas, 현대차증권

<그림15> 전체 감원 vs. AI 감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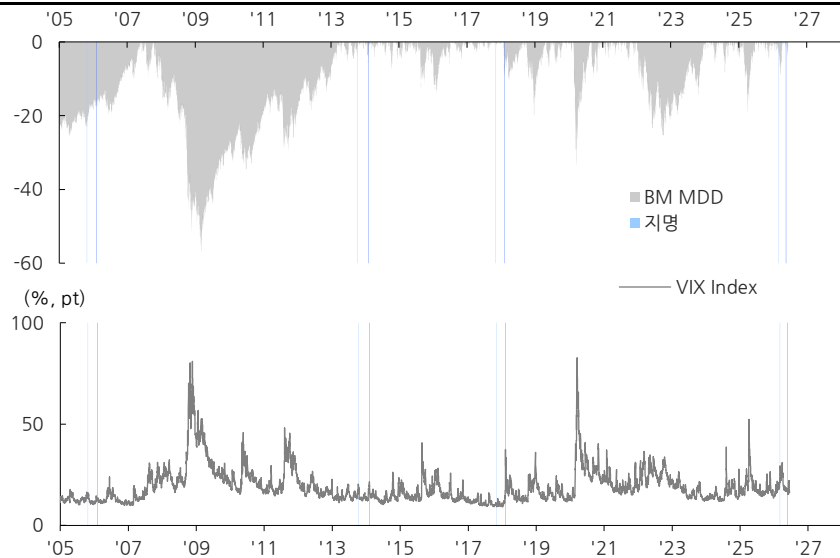
자료: Challenger, Gray & Christmas, 현대차증권

<그림16> 신입 연준 의장 지명 전후 채권 변동성 확대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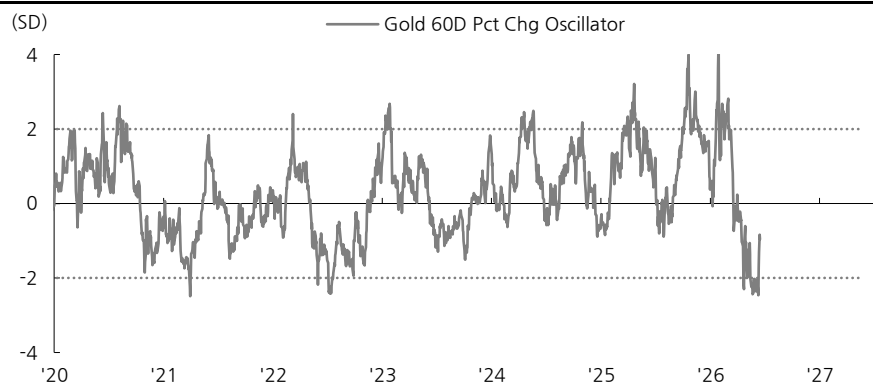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17> 증시도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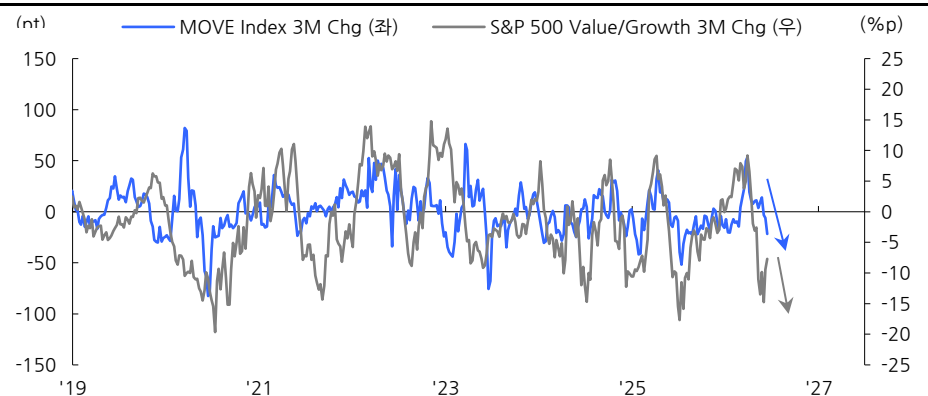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18> 하반기까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재개될 것



자료: LSEG, 현대차증권

<그림19> 성장주 우위 역시 지속될 것



자료: LSEG,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하장권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